

“이주민 무료진료 1천회...공생 힘쓰겠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 '1004회 특별진료'

의사·간호사·약사·학생봉사자 등 72명 참여
14개국 90여명 다녀가...비상약품 등 나눔도

“수많은 의료인과 봉사자의 노력으로 이주민 무료진료 1천회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실시한 무료진료가 최근 1천회를 달성한 가운데 지난 4일 '1004회 특별진료'가 진행됐다.

이번 특별진료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 의료계열 학생봉사자 등 72명이 참여해 기존 의학과, 치과, 한의학과 진료와 더불어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진료 등을 실시했다.

또한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의 결핵 검진과 더불어 각 나라별 언어로 작성된 복용법을 스티커로 부착해 종합감기약 등 비상약품 6종이 들어있는 구급상자와온가족추출제 등을 나눔했다.

이날 센터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4개 나라의 노동자, 유학생, 결

핵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등 96명이 다녀갔다.

중국에서 온 왕수천(53) 씨는 “평일에는 일하느라 병원에 가기 힘들데, 일요일에 저같은 외국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해주는 센터가 있어 매우 다행이다”며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구충제까지 나눠줘서 너무 좋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한 학생은 “광주이주민 건강센터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나중에 의료인으로써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특별진료 의료봉사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호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도윤 학생은 “1천회 기념 특별진료'에 봉사 동아리원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미소지었다.

강주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이사장은 “무료



광주이주민건강센터의 무료진료가 최근 1천회를 달성한 가운데 지난 4일 '1004회 특별진료'가 진행됐다. 이번 특별진료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 의료계열 학생봉사자 등 72명이 참여했으며 14개국 96명이 혜택을 받았다.

진료 1천회가 될 때까지는 전문의료인, 학생봉사자, 후원자,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다해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도록 평등한 진료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단체, 선교단체, 이주민단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조직한 비영리단체로 지난 2005년 6월 설립됐다.

센터에서는 장시간 노동, 의사소통의 어려움, 건강보험 미취득 등의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5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에는 의학과, 한의학과, 치과, 약학과,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 전문 의료인과 의대생, 청소년, 직장인 등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956-3353으로 하면 된다. /오복기자



국제인문사회연구·인문사회콘텐츠학회 '하계 학술대회'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와 인문사회콘텐츠학회는 지난 3일 송원대학교 대강당에서 '2023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두 학회는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광주영어방송과 MOU를 체결, 학술지의 국제화와 더불어 상호 간 다양한 협력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논문

10편이 발표됐다.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최우수 논문발표상은 Liu, Kaiwen (Xi'an University of Posts & Telecommunications), 감리교신학대 박은영 교수가, 인문사회콘텐츠학회 최우수 논문발표상은 한국열린사이버대 이재승 교수와 목포대 이동주 대학원생, 창신대 윤지원 교수, 전주비전대 박정혜 교수 등이 수상했다. /김다이기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 토론회' 성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6일 “체계적인 생물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2023년 한국 생물안전 토론회(론펜서)'를 지난 1-2일 양일 간 여수 디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시작해 올해 11번째로 열린 '한국 생물안전 토론회'에서는 생물안전과 관련한 사람·동물·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사람·동물·수산 분야의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국내 생물안전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해

▲생물안전 시설 운영과 관리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 ▲국가관리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아울러 생물안전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도 수여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사람, 가축, 야생동물, 수산, 식물 등 각 분야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준 높은 생물안전 관리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생물안전 관리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복기자



건강관리협회, '발달장애인 일러스트 공모전' 시상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최근 소셜벤처 키무스튜디오와 함께 '2023 발달장애인 일러스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상식은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남장원 키무스튜디오 대표를 비롯해 수상자 및 가족, 건협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전문 교육과 작품 전시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허물고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78명이 참여해 최종 6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최종 10명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대상은 독특한 질감과 풍부하고 조화로운 색감 묘사를 보인 류현비 학생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 임형섭 ▲우수상 김민수·이현경 ▲장려상 김찬중·설정훈·양예준·이혜원·임호진·황현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복기자

문금주 행정부지사, 고흥 심폐소생술 교육현장 점검

전남도는 지난 5일 응급상황 발생 시 어르신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고흥 동강면 경로당에서 추진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고흥군에서 주최하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첫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 참여 어르신과 고흥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상황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장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하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



요하다”며 “도민 생명 보호에 주안점을 뒀 누구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전남 다산안전대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일 제5회 전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애민사상을 구현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다산안전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공단은 전남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와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취약도로·어린이 통학로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범열 광주전남본부장은 “올해에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짓해요) 캠페인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며 전남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오복기자

광주FC, 주민총회 참석 구단 홍보활동 성료

프로축구 광주FC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광주FC는 지난 3일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센터 일대에서 열린 주민총회에 참석, 참여형 이벤트와 팬사인 등을 열어 지역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단 소재지인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풍암동 주민자치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으며 구단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홈 경기 일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FC 대학생 마케터 '엘리트' 1기의 진행으로 미니축구게임, 추억의 뽑기판, 광



주FC 퀴즈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임근훈 광주FC 경영본부장은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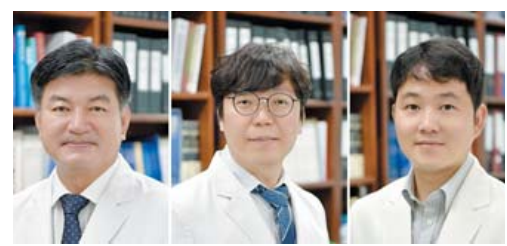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일본응용경제학회 논문 발표

김일태(사진) 전남대 석좌교수가 오는 10일 일본 후쿠오카대학교에서 열리는 2023년도 춘계 학술컨퍼런스에 참가, 논문을 발표한다. 6일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 응용경제학회는 10-11일 양일 간 학술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일본응용경제학회는 일본경제학회와 더불어 3대 일본 학술 단체로, 매년 춘계와 추계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며 2009년부터 한국경제통상학회와 매년 학술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위험과 불확실성 문제를 다룬 'The Comparative Statics of First-order Stochastic Dominance (FSD) Shift: The Case of Relatively Weak FSD Improvements'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위험자산의 확률 분포에서 두 선택 대안(위험자산) 간의 우열을 가리는 1차 확률 우위(first-order stochastic dominance)의 선택 규칙에서 기대효용의 최적화 모형을 통한 불확실한 변수의 확률적 변화에 따른 선택 대안의 의사결정인 비교정태분석을 다룬 이론적 논문이다. /김다이기자



왼쪽부터 남택근·정재욱·조익준 교수.

화순전남대병원 남택근·정재욱·조익준 교수팀 방사선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ROJ논문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 남택근·정재욱·조익준 교수팀이 최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ROJ (Radiation Oncology Journal)'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ROJ 논문상'은 전년도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남택근·정재욱·조익준 교수팀은 '정위 체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국소간세포암종 환자의 예후 인자로서의 PIVKA-II'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논문은 정위체부 방사선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들에게서 간암표지자의 하나인 PIVKA-II 수치가 치료 후 감소했거나, 일정 수치 이하로 낮아진 환자의 국소종양재발률과 무진행 생존율이 유의하게 양호했음을 규명했다. /오복기자



행복드림미래전략연구소-자살예방상담센터 협약

(사)행복드림미래전략연구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1년에 1만3천3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자살예방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자살예방상담센터는 지난 3일 (사)행복드림미래전략연구소 내 전남센터를 개설, '생명존중 전문가' 민간자격증 양성과정 1기 교육을 실시했다.

생명 존중 전문가 양성을, 전남지역 학교 기관부터 노인 경로당 등 단체 자살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근 이사장은 “하나뿐인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다”를 사명으로 앞으로 전남과 여수 지역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생명 살리기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